

『에티카』로 읽는 신과 자연 그리고 인간

제3장 『에티카』 제 1부: 신에 관하여 II

* 존재(자기원인, 실체 그리고 God)의 일의성의 선언(들뢰즈): **“For what can be known about God is plain to them, because God has shown it to them. Ever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his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 invisible though they are, have been understood and seen through the things he has made, So they are excuse.”**(Romans 1:19~20)

I. Of God

정리 12: 실체 자신이 분리된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참다운 실체의 속성은 참으로 자각될 수 없다.

☉ 실체가 분열된다는 것은 실체의 본성에 분열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실체가 유한하거나 외부의 원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많은 실체가 하나의 실체로부터 형성된다는 것이다. 실체가 분열된다는 것은 실체의 본성뿐만 아니라, 실체의 자기 원인과도 맞지 않는다. 실체는 절대적으로 무한하다. 실체는 속성을 통하여 자신

정리 13: 하나의 실체는 절대적으로 무한하며 분리될 수 없다.

☉ 실체가 분열된다면 절대적으로 무한한 본성이 부분들로 분열되는 것이거나 그렇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일한 본성을 가진 많은 수의 실체가 존재할 것이나 이것은 부당하다. 두 번째는 하나의 절대적으로 무한한 실체는 존재하지 않을것이기에 이것도 부당하다.

☉ 실체는 분열될 수 없다. 단지 이것으로부터 무한한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체의 본성은 자각될 수 없다. 그리고 실체의 한 부분에서 유한한 실체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이해될 수 없다.

정리 14: God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도 없거니와 자각될 수도 없다.

☉ God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이며 실체의 본질(essence)을 표현하는 어떠한 속성도 부정될 수 없다(정의 6). 그러므로 God은 필연적으로 실존/탈존한다. (명제11) 만약 God을 제외하고 어떠한 실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God의 어떠한 속성을 통하여 설명되어진 것인데, 그러면 동일한 속성을 가진 두 개의 실체가 실존할 수 있기에 이것은 부당하다.(명제 5) 그러므로 God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자각될 수도 없다.

☉ 이것의 증명에 의해서 God은 통일체이며, 그 본성대로 하나의 실체만 존재하며 그것은 절대적으로 무한하다.(명제 10) 또한 연장된 사물과 사유하는 사물은 God의 속성이거나 또는 God의 속성의 변용들이다.

동일한 속성을 가진 여러 실체는 없다. 수적 구별은 실재적이지 않다.(1~8)	8개의 정의들은 가언적이지 않고 정언적이다. 에티카는 God의 관념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실체의 첫 삼항구조는: 속성, 본질, 실체이다
실재적 구별은 수적이지 않다. 이해하기 위한 모든 속성을 가진 단 하나의 실체만이 있다.(9~14)	오로지 여기서 절대적으로 무한한 실체로서 God의 관념에 도달할 수 있다. 정의 6은 실재적으로 제시한다.	실체의 두 번째 삼항구조: 완전함, 무한함, 절대적

역능(potentia) 또는 생산: 생산의 과정들과 그로인한 생산물(양태들)의 본성(15~36)	내재가 의미하는 바는 원인의 일의성과 속성들의 일의성 모두를 포함한다(즉 God은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원인이라는 같은 의미로 모든 사물의 원인이다)	실체의 세 번째 삼항구조는: 역능(potentia)으로서 본질, 이 역능은 본질로 존재한다. 그리고(양태들에 의해) 작용될 수 있는 수용능력이다.
---	--	---

정리 15: 존재하는 것은 God 안에 존재하고 그렇다면 God 없이는 아무것도 자각될 수 없다.

- ☉ God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도 자각되지도 않는다. 실체는 그 자체 안에서 그리고 그 자체를 통하여 존재하고 자각된다. 하지만 양태들은(정의 5) 실체 없이는 존재할 수도 자각될 수도 없다. 그것들은 신적 본성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만 자각될 수 있다. 실체와 양태들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공리 1). 그러므로 아무것도 신 없이 존재하거나 자각될 수 없다.
- ☉ God을 인간처럼 비유하기: Analogia entis
- ☉ 실체가 부분들로 구성된 신체라는 것.
- ☉ God이 최고의 완전한 존재라는 것.
- ☉ 신체를 가진 실체는 신적 본성에서 의미가 없다.

정리 16: 신적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무한하게 많은 사물들이 무한하게 많은 양태들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 ☉ 하지만 신적 본성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속성을 가지며(정의 6), 그 각각은 자신의 종류대로 본(essence)질을 무한하게 표현하며, 그 필연성으로부터 무한하게 많은 사물들이 무한한 양태로 발생한다.
- ☉ God은 무한한 지성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모든 사물의 효과적인 원인이다.
- ☉ God은 우발적인 원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한 원인이다.
- ☉ God은 절대적인 제1 원인(prima causa)이다.

정리 17: God은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 의해서만 활동하며 그 무엇에 의해서도 강제되지 않

는다.

☛ 신적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만 또는 신적 본성의 법칙으로부터만 절대적으로 무한하게 사물들이 산출된다. God 없이는 아무것도 자각될 수 없지만 모든 사물은 God 안에서 존재한다.

◎ God 자신의 본성으로 완전함을 갖는다.

◎ God만이 자유로운 원인이다: God은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만 실존하며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활동한다.

◎ God의 지성은 사물들의 유일한 원인이다.

◎ God의 지성은 우리 지성의 실존과 본질(essence)의 원인이다.

정리 18: God은 모든 사물의 내재의 원인이지만 외부에 작용하는 원인이 아니다.

☛ 모든 것은 God 안에 존재하며 그를 통하여 자각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God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원인이다. God을 제외하고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God은 모든 사물의 내재의 원인이다.

정리 19: God은 영원하거나 또는 God의 속성들은 영원하다.

☛ God은 실체이기에 필연적으로 실존하며 그 본성대로 실존하며 영원하다.

☛ God의 속성들은 신적 실체를 표현하는 것(정의 4)으로 이해된다.

◎ 속성들 스스로 신적 실체의 본질을 포함한다. 하지만 영원성은 실체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속성들의 각각은 영원성을 포함하며 그것들은 모두 영원하다.

정리 20: God의 실존/탈존과 그의 본질은 하나이며 동일하다.

☛ God과 그의 모든 속성은 영원하다. 그의 속성 각각은 실존/탈존을 표현한다.

◎ God의 실존/탈존은 그의 본질처럼 영원한 진리이다.

◎ God 또는 God의 모든 속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정리 21: God의 속성의 어느 것에 대한 절대적인 본성으로부터 산출되는 사물은 실존해야 하며 무한해야 한다. 또는 그것들은 동일한 속성을 통해서 영원하고 무한하다.

☛ 사유는 God의 속성으로 가정된다면 그것은 본성에 의해 필연적으로 무한하다. 하지만 그것이 God의 관념을 가지는 한 유한하다. 하지만 사유는 사유 자체를 통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면 유한하다고 인식될 수 없다.

◎ 하지만 사유가 God의 속성이라고 가정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실존하고 불변한다.

◎ 그러므로 사유 안에 God의 관념 또는 God의 어떤 속성에 대한 절대적인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산출하는 모든 것도 동일한 속성을 통해서 영위한다.

정리 22: 변형에 의해 양태화되는 한에서 God의 속성으로부터 산출하는 것은 동일한 속성을 통하여 필연적으로 실존하고 무한한 것은 무엇이든지 또한 필연적으로 실존하고 무한하다.

☞ 이 명제의 증명은 앞의 것의 증명과 동일한 것이다.

정리 23: 필연적으로 실존하고 무한한 모든 양태는 필연적으로 God의 어떤 속성의 절대적 본성으로부터 또는 어떤 속성으로부터 산출되어야 하며 필연적으로 실존하고 무한한 변형으로 양태화된다.

☞ 하나의 양태는 타자 안에 존재하며 그것은 God 안에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God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

정리 24: God에 의해서 생산된 사물의 본질은 실존을 포함할 수 없다.

☞ God의 본성은 실존을 포함하고 자기 자신의 원인이며 오로지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만 실존한다.

정리 25: God은 동력인이다(질료인, 형상인, 작용인, 목적인). 사물의 실존에 관해서만 아니라, 그 본질에 관해서도 그렇다.

☞ God은 사물의 본질의 원인이며, 사물의 본질은 God으로부터 인식된다.

정리 26: 하나의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결정된 하나의 사물은 필연적으로 God에 의하여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다. God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은 하나의 사물은 하나의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자신이 결정되지도 않는다.

☞ God은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결과의 본질과 실존 모두에 대해 결과의 원인이다.

정리 27: God에 의하여 하나의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결정된 하나의 사물은 스스로 결정되게 할 수 없다.

☞ 공리 3번에 의거해서

정리 28: 모든 사물 또는 유한하고 결정된 실존을 가진 모든 사물은 실존하든지 아니면 만약 그것이 마찬가지로 유한하고 결정된 실존을 갖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실존하고 하나의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결정되지 않는다면 실존할 수도 하나의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결정될 수도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원인은 마찬가지로 유한하고 결정된 실존을 가지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하나의 결과를 생산하고 실존하기 위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면 실존할 수도 없고 하나의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결정될 수도 없다.

정리 29: 자연 안에는 아무것도 우연적인 것은 없다. 하지만 모든 사물은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의 결과를 생산하고 실존하기 위해 신적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결정되었던 것이다.

정리 30: 유한하든 무한하든 실제의 지성은 God의 속성과 변용(운동)을 파악할 수밖에 없

다.

☉ 참다운 관념은 그 대상과 반드시 일치한다. 지성 안에서 대상적으로 포함된 것은 자연 안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자연 안에는 오로지 하나의 실체 GOd만이 존재한다. God 안에 존재하는 것 외에 다른 변용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리 31: 유한하든 무한하든 실제의 지성은 의지, 욕망, 사랑 그리고 유사함을 가지며 반드시 Natura naturata로 강조되지 Natura naturans로 강조되지 않는다.

- ☉ 지성에 의하여 우리는 절대적 사유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욕망, 사랑 그리고 유사함 같은 다른 것로부터 구별되는 양태인 사유의 확실한 양태만을 이해한다.
- ☉ 사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신의 속성을 통해서 인식될 수 있다.

정리 32: 의지는 자유의 원인이 아니라, 필연적인 원인이다.

- ☉ 지성처럼 의지는 단지 사유의 확실한 양태이다.

정리 33: 사물은 God에 의하여 생산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며 다만 생산되는 것이다.

- ☉ 모든 사물들은 God에 주어진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산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의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그리고 실존하기 위하여 God의 필연성으로부터 결정된 것이다.

정리 34: God의 역능(Potentia)은 그의 본질 자체이다.

- ☉ God의 단독의 본질의 필연성으로부터 God은 모든 사물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다.

정리 35: God의 역능 안에서 인식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필연적으로 실존한다.

- ☉ GOd의 역능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 역능으로부터 산출된다고 이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리 36: 자신의 본성대로 아무런 결과도 산출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실존하지 못한다.

- ☉ 실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본성을 표현한다. 또는 확실하고 결정된 방법으로 God의 본질을 표현한다.
- ☉ 실존하는 무엇이든지 확실하고 결정된 방법으로 모든 사물의 원인인 God의 역능을 표현한다.

제 2부	표현적인 것으로서 관념들
------	---------------

관념과 대상의 인식론적인 병행론(반 데카르트의 이원론) 그리고 정신과 신체의 존재론적인 병행론(1~7)	본질로부터 시작해 양태로, 표현성의 이동: 이러한 이동으로 God의 관념의 역할이 부상.	(실체에 대한) 양식의 삼항구조: 속성, 양태, 변형
---	---	-------------------------------

관념들의 조건들: God의 관념은 자신의 본성의 기초 위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본성과 신체의 기초 위에 기인한 것이다.(8~13)	God의 양상들은 관념들의 관계 속에 있다: God은 자신이 무한하게 존재하는 한에서, 자신이 많은 관념들에 의해서 변용되는 한에서, 단지 자신이 하나의 주어진 관념을 가지는 한에서 God이다.	타당함과 비 타당함
--	--	------------

에티카 제2부: 정신의 본성과 기원에 관하여

☉ 스피노자는 여기서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로서 God의 본질로부터 필연적으로 산출되는 것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즉 스피노자가 정의 16에서 증명했듯이 무한하게 많은 것이 무한하게 많은 방식으로 God으로부터 산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간의 본성과 기원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Geist)과 그의 최고의 행복을 인식하도록 할 것이다.

정의 1: 신체란 God의 본질이 연장된(공간적으로) 사물로 관찰되는 조건에서 현존의 양식(modus)이다. (정리 25참조)

정의 2: 사물이란 어떤 것이 필연적으로 배치되고 그것이 고양되면 필연적으로 없어지는 것 또는 그것이 없이 사물이 또는 거꾸로 사물 없이 그것이 존재하지도 파악되지도 않은 것이다.

정의 3: 정신이 사유하는 사물이기 때문에 관념이란 정신이 구성하는 정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정의 4: 완벽하게 상응하는(타당한) 관념이란 즉자로 그리고 대상과의 관계없이 고찰되는 것으로 참된 관념의 특성과 내면의 표시를 가지는 관념이다.

정의 5: 지속(Dauer)이란 실존의 규정될 수 없는 연속이다.

정의 6: 현실(실재)과 완전성은 동전의 양면으로 하나이다.

정의 7: 개별 사물들은 유한하고 제한된 현존재이다. 만약 많은 사물 개체가 모두 동시에 하나의 결과의 원인이 되는 활동으로 협력한다면, 그러한 조건에서 그 모두는 하나의 개별 사물(개체)이다.